



# 양계용 배합사료 평균 10.94% 인상조치

— 사료품질 향상되어야 —

〈편집부〉

농수산부는 지난 8월 21일부로 배합사료 가격을 <표2>와 같이 인상조정, 최고 판매가격을 지정하므로써 양계용 배합사료는 평균 10.94%가 올라 양계가의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다.

인상내역을 보면 축우용 임신전기가 kg당 76.19원에서 76.25원으로 0.1%가 인상, 가장 적게 인상되었으며 양계용 사료 중에서는 큰병아리 후기가 kg당 82.28원에서 84.02원으로 2.1%라는 가장 적은 인상폭을 나타냈으며 최고 인상폭은 종전 kg당 102.60원에서 10.30원으로 17.3%가 오른 어린병아리용이다.

1975년 12월31일 조정, 시행되어 오던 배합사료가격은 어분, 박류와 같은 단미사료가격이 대폭 상승되었고 (표1참조) 제반물가가 상승되었으며 노무비, 전력비등의 제조경비 상승으로 인해 인상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재조정 하게된 사유이다.

〈표1〉 주요원료가격인상내용 (원 / 톤)

원료명	75.12.31	77.4.15	인상율	비고
어분	145,000	322,933	223%	
대두박	112,000	143,767	131	
채종박	74,000	130,000	176	
기타박류 (호마, 임자박)	92,580	146,250	158	

그리고 조정과정에서 옥수수 공급가격을 톤당 135\$에서 130\$로 인하 조정했으며 제조감량과 공장의 이윤을 인하였다. 또한 옥수수, 소맥피, 국산어분, 패분, 식염은 의제매입세를 적용하고 기타 품목은 부가가치세제를 적용하였으며 농협제통의 배합사료 공장에서 생산판매되는 배합사료 가격은 부가세가 면제되어 낮게 산출됨으로 일반배합사료 공장에서 생산판매하는 배합사료 가격보다 kg당 0.57원~1.69원을 낮게 책정했다.

아울러 농수산부는 품질향상에 각별한 유의를 하여 저질사료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

사실상 평균 10.94%의 인상은 양계가 측으로서는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인상폭인데 반해 일부 사료회사측에서는 협회측이 정부당국에 사료가격인상을 요청할 당시 단미사료의 산출가격이 금년 4월 15일 기준이었고 그 이후에 가격변동이 있었으며 또한 제조감량의 인하, 제조이윤의 인하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의 인상폭으로는 품질이 향상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77년 4월 15일 현재 kg당 350원이던 어분(상품)은 8월 15일 현재 330원이며 박류도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입 옥수수 공급 가격도 3.7% 인하조정 되었으므로 4월 15일 기준가

〈표2〉 配合飼料價格調整總括表 〈單位：圓/kg〉

飼料名		農畜協工場			一般工場		
		現行價格	調整價格	引上率	現行價格	調整價格	引上率
양 계 용 (11종)	어린병아리	99.02	119.73	20.2%	102.60	120.30	17.3%
	중 병 아 리	88.13	102.45	16.0	91.42	108.88	13.6
	큰병아리전기	79.22	84.75	7.3	82.28	86.17	4.7
	“ 후기	79.22	82.63	4.9	82.28	84.02	2.1
	산란초기	85.19	99.60	16.7	87.39	101.03	15.6
	“ 중기	82.19	95.10	15.5	85.32	96.53	13.1
	“ 말기	80.21	92.68	15.5	83.30	94.10	13.0
	육계전기	107.93	121.39	12.8	114.74	122.92	10.0
(11종)	육계후기1	103.97	118.32	13.3	107.67	119.80	11.3
	중 계	93.08	103.58	11.5	96.50	104.94	8.7
양 돈 용 (7종)	젓메기돼지	107.93	117.14	8.5	111.74	118.73	6.2
	어린 돼 지	90.11	95.98	6.5	93.45	97.42	4.2
	중돼지전기	81.20	87.41	7.6	84.31	88.82	5.3
	“ 후기	77.24	84.95	9.9	80.25	86.35	7.6
	임신전기	78.27	84.62	8.1	81.26	85.98	5.8
	포유 돼 지	88.13	93.90	6.5	91.42	95.27	4.2
	씨 “	72.29	80.02	10.6	74.16	81.38	9.7
축 우 용 (11종)	젓메기송아지	107.93	115.91	7.4	111.74	117.30	5.0
	중 송 아 지	93.08	98.02	6.3	96.50	99.40	3.0
	큰 “	68.32	72.74	6.5	71.11	74.03	4.1
	임신전기	73.27	74.95	2.3	76.19	76.25	0.1
	“ 후기	77.24	82.06	6.2	80.25	83.37	3.9
	우 착 유 1	68.77	72.35	5.2	70.55	73.67	4.4
	“ 2	76.25	83.89	10.0	79.23	85.23	7.6
	고깃소전기	77.24	84.45	9.3	80.25	85.80	6.9
	“ 중기	74.27	78.80	6.1	77.20	80.17	3.9
	“ 후기	71.29	75.12	5.4	74.15	76.47	3.1
(11종)	중 모 우		68.30		96.56	69.60	—
기타 (1)	소 돼 지 농 축	93.08	98.37	5.7	96.50	100.06	3.6
계 (29종)			※ 가중평균	92		※ 가중평균	9.03

※ 갓난돼지, 갓난 송아지 육계후기 II 양계용농축, 전분박기초사료 (5종)은 차기배합사료성분량한도 개정시 조정위계 및 대용우 대체로 가격조정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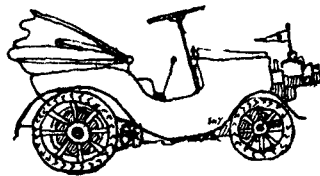
격 운운하며 양질의 사료생산을 기피하는 듯한 태도는 납득할 수가 없다.

항상 사료파동이 있을 때마다 사료질은 저하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료의 소비자인 양축가 스스로가 가격인상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기 짝이 없다.

농수산부 당국은 사료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침언하였지만 현황 사료관리법 제도하에서는 법의 접촉을 받지 않고도 저질사료가 생산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영양소의 함량별 검사제도에 추가해서 가축의 소화흡수율 까지 측정검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배합사료가격고시제를 철폐하고, 영양수준별 사료를 제조공급토록 하므로써 양축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며 외국산 단미사료의 수입제한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료도입국의 다변화와 원료종류의 다양화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우리 양계가들은 이러한 매일수룩 합리적인 사양방법을 연구하고 경영을 개선해 나가므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극복해나가는 슬기를 익혀야 할 것이다.



◎ 가 축·예 방 약

◎ 치 료 제

◎ 소 득 약

◎ 사 료 첨 가 제

◎ 기타국내외약품

## 총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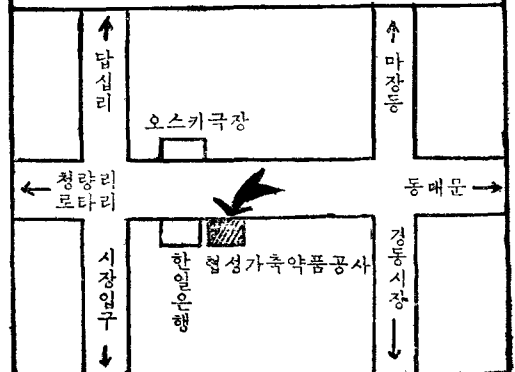
상담수의사: 연 두 희

★ 가축질병상담

★ 지방주문환영

TEL 주간 967) 8779  
야간 966) 923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54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 협성가축약품공사